

시·군체육회와 소통 강화 주력

도체육회, 릴레이 정책 간담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논의
직원·지도자 등 참여소통 나서
“복지후생 등 처우개선” 한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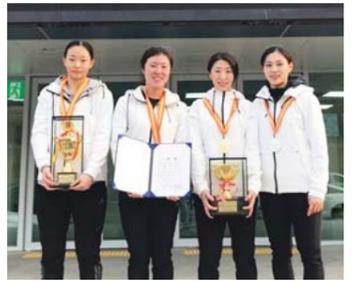
전북도체육회가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시·군체육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무주군체육회에서 열린 릴레이 정책 간담회.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 시·군체육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군산시체육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끝으로 '시·군체육회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소통을 통해 시·군체육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각 시군체육회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또 전국생활체육대축전(4월25~28일)과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5월10~12일),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25~28일) 등 굵직한 대회와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사업실적 등 기존 딱딱한 업무보고 형식이 아닌 직원과 지도자 등 각 시군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이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각 시군체육회에서는 직원 복지후생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체육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도 공유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전국 시군체육회에서는 ▲개정 법

익산시청 펜싱팀, '실업 최강' 명성 이어가

전국남녀 종별 대회서 금 1·은 1



익산시청(시장 정현을) 펜싱선수단 여자 사브르팀이 지난 2일까지 전남 해남군 우술체육관에서 펼쳐진 제48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금메달 1개와 단체전 은메달 1개를 각각 획득했다.
여자 사브르 황선아 선수는 안산시청 서지연 선수를 개인전 결승전에서 10-15로 물리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단체전(김지연,황선아,최신희,최수빈 출전)에서는 안산시청과 접전 끝에 45-40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황선아 선수는 8강에서 팀 동료인 김지연 선수를 4강과 결승에서 연달아 안산시청 선수를 물리치며 기량이 눈부시게 성장했음을 과시했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청 펜싱팀이 전국 실업 최강의 여자팀임을 과시했다"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 올해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몬스터' 류현진, 시즌 2승 달성

MLB 샌프란시스코전서 70닝2실점 호투... 다저스, 6-5 승리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시즌 2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선발투수로, 70닝 6피안타(1피홈런) 5탈삼진 2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개막전 선발투수로 나와 승리한 류현진은 이날 두 번째 등판에서도 안정감을 보였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기도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컷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를 다양하게 구사했다. 두 차례 병살타를 유도하기도 했다. 최고구속은 92.2마일(148km)을 찍었다.
올해 2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되면서 목표인 20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2.08로 조금 높아졌다.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 에이스 매디슨 범가너(30)를 상대로도 판정승을 거뒀다. 그러나 범가너에게 투런 홈런을 맞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1회초부터 호투했다. 선두타자 스티븐 두가를 좌익수 뜯공으로 잡아낸 류현진은 브랜던 벨트를 파울팁 삼진으로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이어 에반 롱고리아를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했다. 4번째 낮게 깔리는 커터의 제구력이 돋보였다.
류현진은 2회 선두타자 버스터 포지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그러나 브랜던 크로퍼드를 좌익수 뜯공으로 처리한 후 안케르비스 솔라르테를 2루수 앞 병살타로 잡아냈다.
3회에도 호투는 계속됐다. 코너 조를 2루수 뜯공으로 잡은 류현진은 헤라르도 파라를 2루수 앞 땅볼로 유도했다. 이어 범가너를 상대로 핫스윙 삼진을 이끌어냈다.
5-0의 리드를 안고 4회 미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상대의 타격 타

이밍을 무너뜨렸다. 두가를 7구 만에 삼진으로 잡아냈고, 벨트와 롱고리아를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5회 공 6개로 이닝을 막아냈다. 포지를 초구 1루수 앞 땅볼로 잡아낸 후 크로퍼드를 1루수 앞 땅볼로 처리했다. 솔라르테에게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를 맞았지만, 2루수 키케 에르난데스의 슈퍼 캐치로 투구수를 줄였다. 5회가 끝난 시점의 투구수는 불과 4개였다.
그러나 6회 급격하게 흔들렸다. 1사 후 파라에게 빗맞은 안타를 허용한 후 범가너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이어 두가와 벨트에게도 연속 안타를 내줬다. 류현진은 실점 위기에서 롱고리아를 삼진으로 속이던 후 포지를 7구 만에 3루수 앞 땅볼로 처리했다.
7회 선두타자 크로퍼드에게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솔라르테를 유격수 앞 땅볼로 처리했고, 코너 조를 유격수 땅볼로 유도해 이닝을 무사히 마쳤다.
다저스는 류현진의 호투와 벨린저의 그랜드슬램을 앞세워 6-5로 승리했다. 다저스는 시즌 4승 2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중국인들의 주목 끈 통쾌한 태권도 시범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산시성 시안 실크로드 국제여유박람회서 시범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산시성 시안 실크로드 국제여유박람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3일 밝혔다.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산시성 시안 실크로드 국제여유박람회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중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3일 밝혔다.
태권도는 중국에서 고교입시 교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 관광공사는 중국 내 태권도 열풍에 힘입어 태권도 관련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씨얼아비'를 초청해 공연 및 시범을 진행했다.
태권도시범단 이숙경 지도교수는 "전라북도에도 특화된 태권도를 기반으로 교육 캠프와 시범공연을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수익도 내고 있다"며, "올해도 전라북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교내 창

업을 활성화해 학생 취업을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INC+사업 지원 창업동아리로 시작한 전주대 태권도시범단은 매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에서 입상하며 그 실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왕성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한국과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진안고원 봄꽃길 BEST 5

올봄, 인생 꽃길 걸어보세요!

- 마이산 벚꽃길**
- 늦게 피면서도 화려한 마이산 벚꽃길 2.5km
- 용담호 벚꽃길**
-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호수 꽃길
- 데미샘 벚꽃길**
- 백운면 반송리~신암리 임하마을 5km
- 곰티재 벚꽃길**
- 메타세쿼이아 길 지나 장승초등학교 4km
- 원연장 꽃잔디동산 16만㎡**
- 꽃잔디축제 (4.13 ~ 5.12)
※ 개화시기 : 벚꽃 4월 중순, 꽃잔디 4월말

진안군 검색

마이산